meritz

조선/기계 Daily

2021. 5. 24(월)

meritz 메리츠증권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 6454-4861
hyun.kim@meritz.co.kr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지수 136p, 중고선가지수 127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지수는 136p(-, WoW), 중고선가지수는 127p(-, WoW)를 기록하며 전주와 동일함. 현대미포조선이 장금상선, 남성해운, 동진해운으로부터 1,800TEU급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2년까지라고 보도됨. (Clarksons)

Global commodity boom drives demand for smaller bulk carriers

건화물시장이 철광석 교역량 외에도 기타 원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 강세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보도됨. 석탄, 옥수수 등에 대한 교역량 증가로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벌크선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됨. 중국의 2021년 옥수수 수입량은 2,600만톤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Why are only CMA CGM and Hapag-Lloyd betting on LNG?

컨테이너선사들은 탈탄소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각각의 접근 방식은 상이하다고 보도됨. Maersk는 LNG연료 채택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며 2023년에는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반면 CMA-CGM과 Hapag-Lloyd는 LNG추진 컨테이너선 확보에 적극적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Seaspan Marine unit turns to China for planned LNG bunker vessel order

Seaspan Marine이 7,600CBM급 LNG벙커링선 1척을 중국의 CIMC Sinopacific Offshore & Engineering에 발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의 인도기한은 2023년이며, 척 당 선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로템, 이집트 공략 가속화…점유율 확대 위해 현지법인 설립 검토

카이로 지하철 1 · 2 · 3호선 전동차 사업을 잇따라 따낸 현대로템은 향후 6호선 입찰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현대로템과 이집트 국영철도회사와 1 · 2 · 3 · 6호선 전동차 약 840량을 제작 ·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NERIC와 손잡는 형태로 특수목적법인이 추진되면 6호선 전동차 사업 수주는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도됨. (뉴스1)

두산중공업, 화학제 없이 폐배터리에서 리튬 추출하는 기술 개발

두산중공업은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탄산리튬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힘. 두산중공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1천500t 규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실증을 추진하고 순도 99%의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